

광주 풍향 재개발조합 투표무효 '파행'

대의원대회서 참석자 107명 중 111표 집계 '무효' 직권으로 28일 임총 결정...포스코 시공자격 논의

광주 풍향구역 재개발정비사업이 투표 무효 파행 끝에 포스코건설의 시공사 지위 취소를 위한 임시총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광주 북구 풍향구역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지난 6일 오후 3시 북구 풍향동 한 교회에서 임시총회 개최를 위한 대의원대회를 열었다.

대의원대회는 '포스코건설 시공사 선정 취소와 입찰자격 박탈', '포스코건설 보충금 700억원 조합

귀속' 안전을 논의할 총회 개최 여부를 묻기 위해 마련했다.

조합 측은 대의원 110명 중 과반 출석(서면 제출 포함), 과반 찬성 조건이 충족되면 오는 28일 총회를 열기로 했다.

이날 대의원대회는 전체 110명 중 107명이 참석했다. 하지만 찬반 표결 결과 대의원 숫자를 넘는 111명의 표가 나오며 전체 투표가 무효되는 파동이 일었다.

대의원대회는 전체 투표가 무효

가 되면서 당초 예정된 1시간을 훌쩍 넘는 2시간30여분간 진행됐다.

결국 조합장 직권으로 이날 투표를 무효 선언하고 28일 임시총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김영숙 조합장은 "당초 임시총회 개최도 가능했지만 대의원들의 의견을 존중하자는 차원에서 대의원대회를 연 것"이라며 "하지만 이날 투표가 무효되면서 임시총회를 선언하게 됐다"고 말했다.

앞서 풍향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일부 조합원들은 "포스코건설이 조합에 제출한 것과 다른 설계도서를 조합원에게 두 차례 제공, 조합으로부터 경고를 받았으나 시공사 선정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총회 소집을 요구했다.

포스코건설은 "조합장이 대의원 결의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경고 공문을 두 차례 보내온 것"이라며 "조합장 임의 경고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광주 풍향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은 북구 풍향동 600-1번지 일원의 15만2317제곱미터(㎡)·4만6075평)를 재개발하는 8000억원대 사업으로 최근 입찰에서 포스코건설이 시공사로 선정됐다.



청년노동자 김용균을 기억합니다 8일 오전 경기 남양주시 마석모란공원에서 열린 고(故) 김용균 1주기 추도식에서 참석정 정의당 대표와 고인의 어머니 김미숙 씨가 구호를 외치고 있다. 고 김용균군은 지난해 12월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비정규직 신분으로 홀로 일하다가 참변을 당했으며 이 사고를 계기로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하고 산업 현장의 안전규제를 강화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美로펌 자료도착으로 속도 내는 'MB' 재판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삼성다스 미국 소송비 대납' 혐의와 관련해 검찰이 최근 사법공조를 통해 신청했던 사실조각 결과를 미국로펌 '에이킨 겐프'로부터 받으면서 9일 이 전 대통령의 공판기일이 열리게 됐다.



8일 범주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9일 오후 3시에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지난 10월21일 공판기일에서 "사법공조에 따른 사실조각 회신이 11월 말 또는 12월 중순까지 도착하면, 내년 2월 중순까지 최종 판결 선고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진행하겠다"고 밝히면서 다음 기일은 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당일 △자료가 최종본인지 △이 전 대통령 측이 요청한 자료는 언제쯤 도착할 예정인지 △추가 증거조사 계획 등을 심리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지난 기일에 "에이킨 겐프"로부터 회신이 오게 되면 삼성 뇌물사건을 1주일내 2~3번 집중 심리해 공판절차를 마무리하겠다"고 했다.

이 전 대통령 측이 요청한 자료 회신은 아직 도착하지 않았지만, 사법공조를 통한 검찰이 요청한 사실조각 회신이 예정대로 온 만큼 재판부가 예정한 내년 2월 중순의 판결 선고는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여수소방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대상 시설, 문화·집회·판매·운수·숙박·위락 시설과 복합건축물

여수소방서는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포상제를 실시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신고포상제는 비상구 폐쇄·훼손, 소방시설 차단 등 위반행위에 대한 시민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해 고질적인 안전무시 관행을 없애고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시행 중이다.

신고포상대상시설은 문화·집회·판매·운수·숙박·위락 시설과 복합건축물(판매·숙박시설포함) 등이다.

불법 행위는 △소방시설 폐쇄·차단(잠금 포함) △비상구·피난

통로 물건 적치 △소화설비 중 소화 펌프를 고장 난 상태로 방치 △기타 피난에 지장 유발 등이다.

신고는 신고서와 함께 촬영 사진, 영상 등을 관할 소방서에 제출하면 되며, 포상금은 현장 위반 행위 확인과 신고포상금 지급 심사회의를 거쳐 지급된다.

여수=김도현 기자

귀 기울여 듣는 성공 비즈니스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광주지역 기업들이 상생협력의 정신으로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는 상공회의소가 되겠습니다.

광주상공회의소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한 새로운 희망!

지역 경제를 위해 열심히 뛰겠습니다!

[제 23대 광주상공회의소 회장 정창선]

중흥건설

신안 흑산도 인근 해역서 규모 2.0 지진 발생

8일 낮 12시9분쯤 신안군 흑산도 북서쪽 70km 해역에서 규모 2.0의 지진이 발생했다.

지진발생 위치는 북위 35.12도, 동경 124.96도, 발생깊이는 6.7km다.

이번 지진은 해상에서 비교적 약한 강도로 발생해 진동을 감지하거나 피해 신고 접수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17명 탑승 낚시배 완도서 교각과 충돌...2명 부상

7일 오전 6시44분쯤 A씨(49)가 몰던 낚시배가 전남 완도군 신지대교 교각과 충돌했다.

이 사고로 B씨(44·여)와 C씨(57)가 각각 머리와 허리를 다쳤고 가벼운 타박상을 입은 나머지 승객 12명도 진료를 위해 인근 병원으로 함께 이송됐다.

완도해양경찰서는 오전 7시10분쯤 완도항에 입항한 낚시배에서 한 자리를 이송 조치한 후 A씨를 대상으로 음주 측정을 진행했다.

조사결과 A씨의 음주 운항은 아닌 것으로 조사됐다. 해경은 A씨가 운전미숙으로 신지대교 교각에 부딪힌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해경 관계자는 "선장 A씨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상과 낚시관리및육성법 적용 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곡성 플라스틱 재활용 공장 불...4시간만에 꺼져

7일 오전 6시38분쯤 전남 곡성군 한 플라스틱 재활용 공장에서 불이 나 4시간15분 만에 꺼졌다.

이 불로 공장 3동 중 1동이 전소됐고 나머지 2동은 일부가 타는 등 그을림 피해를 입었다. 인명피해는 없었다.

불길이 공장 안쪽으로 번지면서 소방당국이 진화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당국은 소방차 24대, 소방대원 73명을 투입, 대응 1단계를 발령한 후 오전 8시12분쯤 큰불을 잡고 오전 10시53분 완전히 불을 껐다.

소방당국 등은 잔불 정리를 한 후 야산과 공장 피해 규모 등 정확한 화재 원인을 파악하고 있다.

유리창 와르르...음주운전 30대 차량·카페 충돌

술에 취해 차를 몰던 30대 남성이 차를 들이받은 후 카페로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7일 술에 취해 차를 몰다 승용차와 카페 유리창을 충격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A씨(34)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10시쯤 광주 광산구 한 상가 골목길에서 술을 마신 후 자신의 쉐넬토 차를 몰다 카페 주차장에 세워진 K5 승용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황한 A씨는 급히 차를 후진하다 이번에는 범퍼로 카페 유리창까지 들이받았다. 카페는 영업 중이었으나 유리창 근처에 손님이 없었지 않아 인명피해는 없었다.

만취해 여대 동아리방서 잠든 20대 남성

만취 상태로 여대 동아리방에 들어가 잠든 남자 대학생이 경찰 조사를 받은 후 검찰로 넘겨졌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건조물침입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한 뒤 검찰에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11월말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8일 오전 6시 44분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용산구 숙명여대 학생회관의 한 동아리방에 들어가 책상에서 잠든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오전 10시쯤 학생에게 발견됐다. 이후 출동한 학교 보안팀이 112에 신고해 A씨를 경찰에 넘겼다.